

600억 적자 예상 제주대병원 비상체제 전환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시공 원천차단

도, 제주 실정 맞는 설계·시공 지침 6월부터 시행
도내에 1만1419개소... 방류기준 초과 사례 많아

올해 예산 계획 전면 재검토해 비용 절감 총력
의대 증원 문제따른 전공의 사태 경영난 부채질
“직원 무급 휴직 신청 등 특단 조치로 위기 돌파”

지난해 수백억대 적자를 기록했던 제주대학교병원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최악의 경영난에 부딪히자 긴급 재정을 주요 골자로 한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공식 선포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29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전체 교직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최규명 병원장이 이날 직원들에게 발송한 ‘비상경영체제 운영 방향’에는 병원이 처한 경영 위기와 목표한 병상 가동률, 비용 절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주대병원은 2013년 처음으로 1000억원 이상의 의료수익을 올린 후 매년 적게는 6%, 많게는 최대

28% 이상의 수익 성장을 거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34억원 이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병원 측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진을 포함한 전 부서, 노조가 참여하는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2월 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뒤 3월부터 전면 시행하려 했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터지며 이런 계획을 보류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은 가뜰이나 힘든 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했다. 정부가 의료진 업무 가중을 우려해 경증 환자들에게 개인 병원에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병

원 측도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시키면서 70% 수준이던 병상가동률은 40%로 급감했고, 병원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술 건수도 하루 평균 12건 이상 줄었다. 병원 측은 이 상태가 지속하면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 334억원의 2배 수준인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병원장은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비상경영 체제의 핵심은 비용 절감과 단기적으로는 수익 유지, 장기적으로는 수익 증대”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법인 카드 사용 절감과 직원 대상 무급 휴직 신청·진행에 더해 올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70%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긴급 재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의료진 번아웃’을 막는 수준에서 피로도가 높은 쪽은 외래 진료를 줄이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곳은 반대로 늘려 전체 병상 가동률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5월부터 경영 진단 영역을 벌여 내·외부 경영환경을 다시 분석하고, 새로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제주대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 108명 중 1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 사직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수도권 삼급종합병원도 줄줄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 신사업 전면 중단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언론과 환자들에게는 30일쯤 비상경영체제 전환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제주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1419개소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만, 도와 행정시의 실태 조사와 기술지원으로 관리상태는 향상되고 있음에도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문제다. 이에 도는 도내 실정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침에 ▶방류수수질 향상을 위한 설치용량 확대 ▶책임일명제 통한 사후관리 ▶세부 시공기준 마련 통한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공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시 발생오수량은 130% 이상 여유를 뒤 최소 3t/일 이상으로 설계하고, 집전분리조 별도 설치와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등 방류수 수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 대해서는 내부 칸막이 양면 보강, 물체·칸막이 두께 상향, 전처리조와 후처리조 별도 설치, 10㎡/일 이상 콘크리트 박스 시공 등 내구성 강화를 위해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부는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20㎡/일 이상은 고도처리공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해 압축강도, 외벽 두께, 철근 배근 간격 등 세부 설치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1일자로 최성유씨 부임

제22대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최성유(56·사진)씨가 부임한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최신임 부교육감이 부임한다. 최 신임 부교육감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 교육협력과장, 외교부 주일대사관 참사관, 순천대학교 사무국장,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오순문 전 부교육감은 이날 3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강다혜기자



독자제보 750-2232



녹차밭에서 '찰칵' 29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오설록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개 낀 녹차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탈락 이의신청

제주대학교가 5년 간 국고 1000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단계서 탈락한 데 대해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대학교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예비지정 탈락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지난 25일 교육부에 제

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지난 16일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마감된 올해 예비지정 신청에 65개(109개교)의 혁신기획서가 제출됐는데, 평가 결과 선정

된 총 20개(33개교) 예비지정 명단에 제주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제주대학교는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 25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다음달 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제주·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동반 하락

제주시와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가 동반 하락했다. 29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20%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0.47% 감소했고, 동 지역은 0.01% 하락했다.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52만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1312필지다.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기도 지난해 대비 평균 0.19% 떨어지는 등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읍면 중 대정읍이 -0.35%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귀포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대

상 총 23만7147필지다. 양 행정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달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서귀포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가격이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에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양 행정시는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제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선희·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풍요로운 제주바다 조성 선두기업 동성해양개발 주식회사는 「시비재 충전 해조생육 블록」을 개발하여 2022년부터 제주도내 마을어장에 시설하고 있으며, 높은 파도와 태풍에도 유실이 없고 참모자반, 우뚝가사리,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면서 갯녹음 치유와 바다숲(해중림) 조성 효과로 해녀어업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비재 충전 해조생육 블록 시설 초기 전경 | 해조생육 블록 구역 참모자반 군락 형성 | 해조생육 블록 구역 우뚝가사리 군락 형성 | 해조생육 블록 구역 미역 군락 형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록서길 23, 105호(화북이동)
Tel) 064-758-1192, Fax) 064-758-1196, E-mail : dss3776@hanmail.net